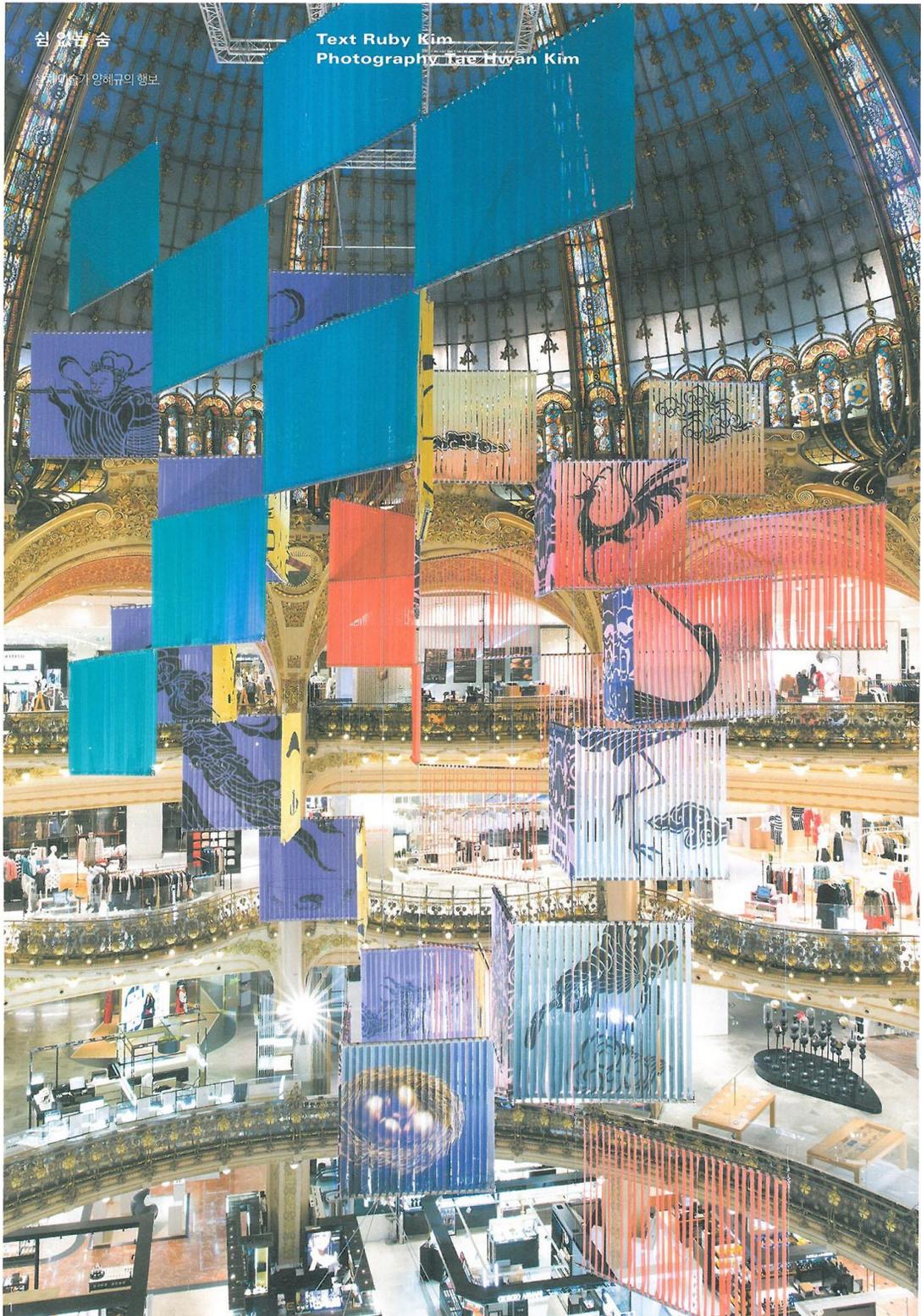


쉽 없는 숨 설치미술가 양혜규의 행보

November , 2016 | Ruby Kim

page 1 of 4



서울과 베를린에 거점을 두고 뉴욕, 파리 등 다양한 도시를 오가며 잠시도 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노마드 작가'라고 불리는데, 설치 미술에서 장소와 공간은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곳저곳 떠돌며 지내는 생활이 작품에도 영향을 끼치나?

영향이라... 어려운 질문이다(웃음). 1년에 절반은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고, 그 사이 전시 일정으로 다른 도시들에도 머물기는 하지만 거주 개념보다는 인&아웃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사실 요새 이런 걸 두고 생활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일정이라고 해야 할지(웃음). 감당하기 버거운 때가 있기는 하다. 본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욱 업타이트하게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인터뷰 일정을 잡으면서도 느꼈을 거다.

맞다, 오늘 인터뷰를 하기까지 일정을 확인하는 매일을 10여 통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짐작했다.

미리 스케줄을 잡아놓고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왜냐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일 오후 6시까지의 약속을 안 잡고, 사람도 잘 안 만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해줄 수도 없는 게 작가의 삶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인생을 미리 살아버린 느낌도 든다. 모든 일정과 계획이 잡혀 있고, 그대로 사니까(웃음). 장단점이 있다. 규율적으로 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주변 친구들이 놀리는 것처럼 재미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작품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매해 꾸준하게 작업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부지런한 작가다. 올해 접한 이슈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가장 최근의 일부만 이야기해보자. 파리 라파에트 백화점의 초대로 본점을 비롯한 프랑스 전역 51개 지점 매장 쇼윈도에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현대미술에 관심이 높기로 유명한 라파에트지만, 이번 같은 대규모 스케일의 협업은 현대미술가 가운데 처음이라고 들었다. 축하한다.

라파에트는 그동안 꾸준히 다양한 미술가들과 소셜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미술 활동을 많이 벌여왔다.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수락했고, 스스로 재미있게 작업을 즐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미리 제안해서 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다. 늘 내 영역에서만 일을 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도 신선했다. 수십 년간 소원도 디스플레이를 한 베테랑들이지 않다. 이들에게 녹아 있는 축적된 노하우, 역사를 역으로 엿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 요즘 미술계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클래머스해지고 상업적인 경향이 짙어졌달까. 그렇지만 그런 경향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작가로서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작업물에는 만족하는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뿌듯하다(웃음).



1 양혜규의 설치 작품이 전시된 파리 라파에트 백화점 전경
2, 3 독일 할부르크 콘스트할레에서 진행된 <의사(擬)-이교적 모던 Quasi-Pagan Modern> 전시



제목이 눈에 띄더라.

전시나 협업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 용모다 작가 이름 석 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다. 작가들이 브랜드화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 같다. 주제나 내용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면 양혜규는 내용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년 전시를 할 때 주체 쪽에 이름과 전시 제목을 동일한 폰트 사이즈로 해당하고 요구한다. 이번 라파에트 협업도 올해 초 뉴욕에서 한 전시 <의사(擬)-이교적 미니멀>, 할부르크에서 한 <의사(擬)-이교적 시리얼>에 이어 <의사(擬)-이교적 모던>이라 지었다. 나에게도 상징적인 의미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리듬과 관심을 끌고 나가는 방향이다. 물길 이 합해지듯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내고 싶었다. 작가적 욕망이랄까(웃음).

세태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작업하면서, 커뮤셀과 파인아트 사이에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것 같다.

글쎄, 밸런스는 잘 맞지도 수지 타산은 안 맞는다(웃음). 울어붙은 여름 내내 라파에트 작업에 올인했으니 말이다. 바캉스가 맛물러 진행이 쉽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잘됐다.

내친김에 상반기 주요 작업들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좀 묻겠다. 포르투갈 포르토의 세할베스 현대미술관 야외에 설치 작품 '불투명 비림이 부는 육각 공원'이 전시 중이다. 백화점에 이어 공원이러니, 대중의 일상에 아주 가까이 침투하게 되는 건데, 소감이 어떤가?

세할베스 현대미술관은 공원 안에 위치해서 오랜 시간 시민들과 돈독한 애정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원래 미술관이 공원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서 미술 활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경계가 나빠지면서 그런 전통이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하더라. 새로운 환경이 부담하고 재할 과정에서 나를 접촉했다. 내 입장에서는, 그들이 시민들과 미술을 만나게 하기 위해 나 같은 작가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조금 놀랐고, 반가웠다. 스스로 미술가의 역할과 포지션에 대해 반문도 하게 되고, 결국 쉽지 않은 일이지가 고민이 있었으나 결국은 작품을 설치하게 됐다.

한편,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는 오랜만에 신작을 선보였다. '중처럼 가지지 않는 누스(Nous)'로 기존에 선보인 블라인드 작업 방식을 뒤엎고 새롭게 작품을 변형했다.

블라인드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작업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째다. 퐁피두에서 블라인드 설치작의 한 카테고리만을 총정리하는 책을 준비 중인데,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처음으로 작업 개수도 세웠다(웃음). 나로서는 처음으로 내 작품을 돌아본 셈이다.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동시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일이 우려가 됐다.

경계하는 일?

어떤 작가와 작품이 동격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는 콜라판으로 작업을 하고, 또 누구는 노란색에 경도된 작가로 불리는 현상 같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

는 미술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작업물에 시각적 특징이 고정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좀처럼 가지지 않는 누스'는 블라인드라는 재료를 어떻게 또 한 번 극한까지 밀어붙일까 하다가, 최근까지 했던 '순백색의 솔 르윗 시리즈'의 방식을 버리고 작품에 컬러를 부여하고, 구성과 설치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나를 잘 아는 친구들은 웬 핑크와 민트나, 심경의 무늬 변화가 생겼냐며 놀리기도 하더라(웃음). 어쨌거나 기존 작품들에 비해 훨씬 느낌이 부드럽고 데커레이티브하게 완성된 것 같아 마음에 든다.

누스(Nous)의 뜻이 그리스어로 잠재된 지적 능력, 자성, 이해, 마음, 사고,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들었다.

쉽게 번역할 수 없는 국면이 있는 단어다. 간단하게 말해 누스라는 것은 잠재적 생각이다.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고 누군가의 마음에 품어져 있는 상태의 추상적 사고다. 블라인드 작업을 하면서 항상 머리에 새기고 있는 키워드다.

일상적인 사물들의 형태를 가지고 경험과 기억 같은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사유를 하게 만드는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평소 작품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나?

그건 나도 모른다. 그게 맞는 답 같다. 한편으로는 어떤 작업이 다른 작업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그 작업에 내재한 노하우, 근력,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인간 양해규가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흐름에 맡긴다.

작품 활동 이외에도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인문학, 정치, 사회에도 관심이 많아서인지 작품에 그런 이슈나 요소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 당신에게 모티프를 주는 현상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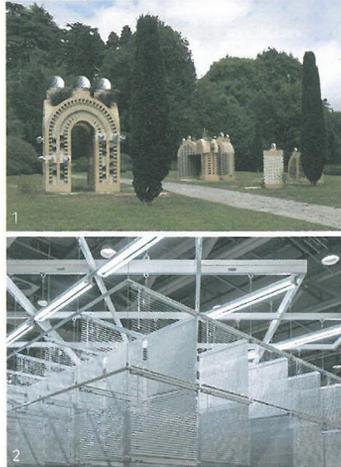
혼성, 서로 다른 것들끼리 충돌하면서 시작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뭔가를 일으키는 현상을 주시한다. 1990년대에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작가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사회와 정치뿐 아니라 기술적인 것까지 세계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체감한다. 미술이라는 무대도 그만큼 커졌다. 어디에서나 작품을 펼쳐놓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이제는 아랍 출신 친구들이랑 전시를 하고, 같은 아시아인끼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에서 나눠보는 일이 좀 더 쉬워졌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감한다. 경계선이 허물어져가는 시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세계화였다면 이제는 세계화 이상의 클리셰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느냐가 논의되는 시기 같다.

그리고 보면 당신만큼 장르와 소재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각적 유희를 즐기는 작가도 드물다.

잠식성이라 그렇다(웃음). 무의식적인 것도 반, 의식적인 것도 반이다. 주변에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



1 포트투갈 포르토 세할베스 현대미술관 야외 공간에 전시 중인 설치작
 <불투명 바람이 부는 육각 공간>
 2, 3 2016 아트 바젤 <인티미티드>에 출품한
 <솔 르윗 뒤집기 -23베로 확장 후 셋으로 나뉜 팀이 있는 구조물>
 4 홍콩피드 센터에서 선보인 신작 <좀처럼 가지지 않는 누스>



면, 그걸 습득하는 동시에 좀 까부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반항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나한테 좀 있다. 그러다 보니 갈래가 많아질 수밖에.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런 건 너무 많다. 이제 자체해야 하지 않을까, 반성도 한다(웃음). 나 자신도 너무 힘들고, 주변에도 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이 잠식적이고 넘쳐나는 에너지를 순수하게 놔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른스럽게 좀 정제를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나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있다.

영화?

프랑스 작가 한 분이랑 공동 감독으로 참여하는 작품이다. 미술이라고 하기에 영화 같고, 영화라고 하기에 미술 같다. 요즘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꽤 있긴 한데, 나한테는 어쨌든 외도다. 앞으로 계속할 수 있거나 하고자 하는 메체는 아니지만 어찌다 보니 함께 작업을 하게 됐다.

깜짝 뉴스다.

부족한 게 많다. 처음 해보는 거라 열심히 해야 한다. 1년 반 정도 준비해왔고, 릴리스는 2018년 4월 정도로 생각한다. 여하튼 쉽지 않다. 돈도 하나 없으면서 일단 데드라인 먼저 만들었다(웃음).

외도라 표현했으나, 어떤 작품이 나오지 너무 궁금하다.

작가들이 하는 작업이라 상업 영화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작한 거니 끝까지 잘해야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LA 빌라 오로라에 소재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초대돼서 3개월간 작업을 이어갈 거다. 그리고 2019년 3월 MOCA에서 전시가 잡혀서 당분간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 회고전과는 다른 성격의 스칼라식으로 하는 전시인데, 3년간 미술관 전시 큐레이터와 밀착해서 그동안 해온 작품들을 가지고 학구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내년 초 반부터 내가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다.

굉장한 영광이다. 한국인 최초 아닌가?

영광이라기보다, 진심으로 반갑다. 자국의 작가도 아니고, 어떤 에니버서리의 성격도 아닌데 순수하게 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했다는 게 놀랍다. LA라는 도시에서 양해규라는 작가가 전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질지 나도 궁금하다.

한국에서의 전시 계획은 없나?

전혀 없다. 그러나 기다리면 뭐가 오겠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웃음). ■

